

의심을 가지기 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 32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임성재 님

I. 들어가며

예비관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관세사 임성재입니다.

2차 시험을 치른 후 90일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매번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 쓰던 나날들을 보내고 드디어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말 바래왔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생각났고, 그 날 하루를 무덤덤하게 보내며 지난 수험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관세사’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시는 수험생분들 또는 관세사 시험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의 2년간의 수험생활(Ⅱ.) 및 각 과목 공부 방법(Ⅲ.)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합격한다.”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수험생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오니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는 정도로 읽으셨으면 합니다.

Ⅱ. 2년 2개월간의 수험생활

1. “관세사”를 나의 목표로 삼기까지..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을 대학 입학 후 처음 알았으나, 입학 당시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23살 때 저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전문직에 대한 꿈이 생겨 저의 전공과 밀접한 전문직인 관세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약 4개월 동안 관세사가 하는 일, 관세사 시험정보, 과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며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애착이 가기 시작하였고, 관세사 합격생의 수기를 읽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내가 관세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수험생활에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 1차와 2차를 병행

군복무를 마치고 2013년 5월에 1차 4과목 기본강의를 시작으로 저의 수험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5월 6월에 1차 기본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1차 시험은 타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에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한 수험생활을 뽀뽀하게 해보자는 마음과 2차를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7월 8월에 2차 기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2차 기본강의를 들으면서도 매일 회계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013년 9월 대학교에 복학을 하였고, 학교 관세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대학교 수업은 최대한 무역실무를 커버하기 위해서 관련 전공과목을 수강하였고, 9월에 본 학원이 설립되어 이 학원에서 9월, 10월 동안 2차 기본강의를 다시 수강하였습니다.

2차위주의 공부는 11월까지 계속되었고 1차 과목은 매일 아침 회계공부를 1시간 이상씩 하면서 감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2차 과목과 1차 과목을 병행하면서 1차 과목의 시간을 점점 늘려갔고 14년 2월부터는 1차에 올인하여 공부를 하고 4월에 시험을 치고 1차 합격을 하였습니다. (2014년 1학기부터 휴학을 하였습니다.)

3. 2차 시험 준비

1차 시험을 치른 후에는 약 2주간 쉬고, 5월부터 다시 2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차를 공부한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였기에 동차합격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고 그 해 시험을 본다면, 본격적인 2차 준비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다른 유예생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패기를 가지고 6월에 모의고사를 신청해서 1달간 모의고사를 보고 7월에 2차 시험을 쳤습니다.

2차 시험을 친 후 1달 정도 쉬면서 계획을 세우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2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차 공부를 미리 해본 저로서는 그동안 공부 방법에 대한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으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고,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저만의 스케줄대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강의는 공부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만 인강으로 심화, 마스터 과정, 문제풀이과정을 들었습니다.

저의 그 당시 목표는 12월말까지 4과목 모두 충분한 회독을 통해 전 범위를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의 암기를 해놓는 것이었고 목표의 80% 정도를 이룬 후 1월 모의고사를 시작하였습니다.

4. 모의고사

저는 모의고사를 1월부터 6월 까지 모두 신청하였고 한회도 빠짐없이 24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회독의 주기를 모두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진행하였습니다. 첫 모의고사에서 전체 4등을 하여 자신감이 붙었고, 계속해서 매주 꾸준히 상위권에 머무르며 모의고사기간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매주 매주를 준비하며 6개월을 보내왔고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전체 3등을 하였습니다. 모의고사의 등수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인 모의고사 성적이 저의 실제 시험에 대한 자신감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5. 생활패턴

저는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생활습관, 생활패턴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
니다. 공부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강박
을 가지고 생활패턴을 고수하고자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생활패턴에 착오가 생겼다하여 스트레
스로 하루 자체를 말아먹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 또한 1년차 때에 그러한 강박으로 인해서 하
루 종일 공부 스케줄이 꼬여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생활습관을 잡기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은 하되, 생활패턴에 대한 조금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될 때 즈음에는 어느 정도 공부습관, 공부하는 시간, 생활패턴이 일정해져 있
었고, 매일 아침 8시에 학교에 도착해 8시 반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순 공부시간은 12시간 ~ 13시간 정도였습니다.

공부는 일요일에만 쉬고 월~토요일 6일 동안 하였습니다. 모의고사도 일부러 일요일에 신청하
여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요일에 모의고사 보고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6. 수험생의 적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험생의 주적은 술, 야식 그리고 여자(남자인 경우에만..)이라고 생각합니
다. 술과 야식 그리고 여자, 많은 남성분들이 좋아하듯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저에게
는 공부를 방해하는 매우 큰 요소였습니다.

우선 술을 마시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과음을 일삼게 되어 다음날 공부를 할 수 없는 지
경에 이르는 것은 물론, 적게 마신다 하더라도 숙면을 취할 수 가 없습니다. 잠이 편안해야
다음날 공부할 수 있는 컨디션이 좋지요. 저의 경험상 술을 전날 마셨다면 다음날 공부는 할
수 있더라도 집중력이나 피로도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와 확실한 차이가 났습니다.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잠의 양보다는 잠의 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장시간 자서도 안 되고 잘 수도 없습니다. 저는 공부시간 이동시간 등을 다 제외
하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대략 6시간 이내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적은 수면시간에 질을
높이기 위하여 1월부터 시험 날까지 월요일 ~ 토요일에는 술과 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도 모의고사를 보고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정도 먹는 것이 다였습니다.

저는 수험생 시작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수험생이 되어서도 계속 연을 같이하면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모든 연애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
등은 학업에 굉장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더 스트레스가 되어 더 큰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또 다시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의고사가 시작될 즈음 그 인연의 끈을 내려놓고 저의 큰 꿈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공부 이외에 오는 스트레스는 없었기에 큰 심적 흔들림 없이 마지막 6개월을 보
냈습니다.

7. 마음가짐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반 이상은 자신감으로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고시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과연 내가?” 보다는 “반드시 내가”의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했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사에 대한 확고한 저만의 신념이 있었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의심을 가지기 보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Ⅲ. 공부방법

(1차과목, 2차과목, 회독 수와 학습시간)

- 1차과목 -

1. 관세법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차 공부당시에 2차와 병행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1차 관세법은 구민회 관세사님 기본강의만 듣고 바로 2차로 넘어 갔기 때문에 2차 관세법 책으로 1, 2차 공부를 커버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 했습니다. 혹자는 1차와 2차는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책도 달라야 한다고 하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객관식이던 주관식이던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책 내용도 유사하기에 크게 다르게 느껴 지지 않았습니니다. 개인적으로는 관세법 2차 책이 더 이해가 잘됐고 큰 그림을 잡고 세세하게 들어가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세법 개념을 회독을 통해 충분히 익히고 1월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를 풀고 틀린 것을 복습하면서 내용의 빈틈을 촘촘하게 채워나갔습니니다.

FTA 특례법은 과감에게 건너뛰었습니다. FTA로 시간을 쓰기보다는 관세법에 좀 더 충실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목을 생략한다는 것은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의 근원이 됩니다. 불안하면 시험 준비나 시험당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으면,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무역영어

많은 분들이 회계학 다음으로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무역영어입니다. 무역영어는 11월, 12월 달에 3대 협약 (CISG, UCP, INCOTERMS) 중심으로 회독을 늘려갔습니니다. 3대 협약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김용원 관세사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만 익혔습니니다. 1월부터 문제풀이를 통해서 부족한 협약 부분을 다시 반복하여 읽었고,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문제 푸는 스킬을 늘렸습니다. 무역영어는 많이 읽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3.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과 함께 평균점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만큼 공부가 다른 과목에 비해 쉽고 학습 분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과목입니다. 쉬운 과목일수록 빨리 잡아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원 관세사님, 이경신 관세사님 심화와 문제풀이강의를 12월부터 미리 준비하였고 핵심부분을 요약한 것을 위주로 계속 공부하고 연습문제를 풀어보는 식이었습니다. 내세법은 기본적 개념정의와 그 산출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문제에 적용해보는 반복적인 작업을 시험 날 까지 계속하였습니다.

내세법 안에 있는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은 세율을 꼼꼼하게 외우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그 이외에 복잡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암기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4. 회계학

1차 과목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으로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과목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회계학의 경우 동차 때에 2차 공부를 하면서도 놓지 않은 유일한 과목이었습니다. 기본강의부터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 모든 수업을 다 들었으며 원가회계까지 꼼꼼하게 공부했고 거의매일을 1시간 반 이상씩 회계학에 투자했습니다. 학습방식은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의 유형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강의는 유지원 회계사님의 강의를 들었고 유지원 회계사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그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회계학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시험 당일 가장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불안한 과목이었습니다. 회계학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다른 과목 공부도 편안하게 임할 수 있고 전체 시험을 과락 없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 2차 과목 -

1. 관세법 (시험점수 65.5점)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관세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자 동차 때부터 요약노트를 만들거나 목차노트를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국 다시 책을 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예부터는 노트는 다 버리고 오로지 책만 보고 공부를 했고, 책에 기본, 심화 때 배웠던 추가적인 내용들을 적어 넣었고 심화, 문제풀이 과정에서 받았던 추가적인 자료들을 책에 넣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목차노트도 정리노트도 아닌 기본서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습할 때에는 가장먼저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고 특히 기본서에 시작되는 각 개요부분과 제갈현근 관세사님이 수업 때 설명해주시는 부분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세부적인 내용이 큰 그림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의고사 전에는 이해를 중심으로 읽었고 모의고사 시작하면서 암기해야 할 부분을 암기하면서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세법의 경우 모의고사 전까지는 이해위주로 읽고 반복하여 눈에 익혀두어 회독을 늘려가는 것이 좋고 모의고사

이후에는 암기할 부분을 암기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급특례법은 모의고사 1달 전인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였으며 관세법과 환특법을 따로 시간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환특법은 매일 1시간씩 꾸준히 하였고 회독이 늘어가면서는 매일 30분씩 투자하였습니다.

목차노트는 만들지 않았지만 목차의 중요성은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트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장'이 시작하는 부분에는 대목차를 적어 넣었고 대목차가 시작되는 부분 옆에는 중목차를 적어 넣었으며 중목차부분에는 소목차들을 적어 넣어, 내용부분에 들어가기 전 큰 그림부터 작은 부분까지 한눈에 파악되도록 하였습니다.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적어 놓은 목차를 보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그 목차의 위치가 기억되었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목차암기가 되면 공부한 내용이 섞이지 않고 체계화 되어 오래 기억에 남고 목차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유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의 경우에는 목차가 모두 나열되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목차를 따로 기억해 둘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수험기간 중에 머릿속에 개념을 쉽게 꺼내기 위해서는 목차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정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작년시험의 경우 항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항목이 주어지는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점수 66점)

조천희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HS는 모두가 처음 접하였을 때 정말로 당황스러운 과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부터 드는 과목이지요. 하지만 미리 준비를 잘 해 놓는다면 평균 점수를 높여주는 효자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을 하지 않는 과목으로 본인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아주 솔직한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듣기 전에 관세율표의 부와 류의 체계부터 암기를 하였습니다. HS는 부와 류 그 자체가 목차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계가 금방 잡히는 과목입니다.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미리 눈에 익혀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 학원 수업을 하면서 통칙과 관세사님이 체크해 주신 주 규정을 위주로 암기하였고 미리 4단위 호의 체계의 암기식을 적어 두어 2바퀴째 암기를 할 때 4단위 호의 체계도 함께 외웠으며 3바퀴째에는 체크해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조금씩 추가하여 암기하는 식으로 회독수가 늘어갈 때마다 암기할 주 규정을 늘려 갔습니다.

모의고사 이전에는 기본 법령집 위주로 암기하였으며 모의고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기본서에 있는 해설서중 조천희 관세사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을 위주로 법령집의 빈부분에 포스트잇으로 정리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부하지 않았던 해설서 부분에서 모의고사가 나오면 그때그때 법령집에 옮겨 적어 공부하고 암기했습니다.

HS의 경우 이해보다는 암기를 우선으로 하여 다른 과목 보다 먼저 암기에 들어갈 것을 권하며, 이해는 경험상 전체적인 암기 수준이 올라가고, 해설서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 무시 못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의4단위 체계와 제외 주 규정이고 이들을 일찍이 암기식이나 자신만의 암기법으로 준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부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침착하게 조금씩 다루는 양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덧 HS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HS 시험의 경우 기존 유형과 다른 문제들로 인해 당황을 많이 하여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침착하게 잘 서술 해나갔으나 시험이 끝난 후에도 가장 불안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이렇듯 시험유형만 바뀌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당황하고 초조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시험에는 많이 공부하고 또 자신도 있었던 주 규정과 4단위 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시험이었습니다.

3. 관세평가 (시험점수 60점)

김병수 관세사님의 기본이론, 심화, 마스터,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까다로워 하는 과목입니다. 법 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으나 WTO협정도 함께 다뤄야하고, 관련 사례를 보고 판단하여 관련법이나 협정으로 근거를 뒷받침하는 등 그 서술 방식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암기보다는 이해위주로 논리적 판단과 근거를 제시하는 스타일이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일 흥미를 많이 느낀 과목으로 모의고사에서도 과목 등수가 항상 높았던 과목이었습니다.

관세평가는 처음에는 법 구조 파악과 법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세평가는 법 내용이 많지 않으나 그 법 내용 하나하나에 이해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어떠한 법이 우선으로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 제외되는지 등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항목에 대하여 체계화 하였습니다. 기본서와 기본, 심화강의를 기본 바탕으로 기본기를 쌓고, 마스터 과정에서 받은 협정내용과 사례가 정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기본과 심화 강의에서 정리한 내용을 옮겨 적어 단권화하여 그것만으로 회독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법 내용을 따로 한눈에 알아보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법, 령, 규칙, 고시를 받아 내용 파트별로 법 령 규칙 고시를 보기 쉽게 연결하여 법령집을 만들어 그것으로 법 공부를 하였습니다. 4과목 중에 유일하게 기본서를 활용하지 않고 정리노트, 단권화 위주로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용 정리가 길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법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풀이강의에서 제공되는 문제로 써보는 연습을 하였으며,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에 받은 관세평가 해설지는 따로 모아서 꼼꼼하게 다시 읽고 체크하면서 실전감각을 키워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기본기를 잘 쌓고 법과 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 올린다면 법 암기는 물론 사례문제 대비에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관세평가는 암기만으로 절대 고

득점을 얻을 수 없으며, 책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올해 관세평가의 시험은 사례형 문제 보다는 기본 법령중심의 문제 비중이 많았었고, 특히 50점 문제의 경우 협정에 나와 있는 예시로 수업시간과 모의고사에서 김병수 관세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문제였습니다. 관세평가의 경우 김병수 관세사님의 모의고사 난이도가 워낙 어려웠던 터라 개인적으로 실제 관세평가시험을 치를 때에 6문제 모두 순조롭게 풀었던 편입니다. 이번 관세평가는 문제는 기본 법령 습득과 사례 응용능력 그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되고 다양한 유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 무역실무 (시험점수 64.5)

최권수 관세사님의 기본이론과 심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무역실무는 기본 무역실무이론과 관련 협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까지 있는 양이 정말 방대한 과목으로서 시간투자가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대학전공에 많이 배웠던 것들이 많아서 접근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협정 암기를 하는 데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누구나 금방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나 관련 협정에 대한 암기와 이해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특히 CISG, INCOTERMS, UCP를 가장 먼저 암기하였고 추후 운송파트의 관련 협정과 보험파트의 ICC, MIA 핵심 협정들을 암기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기본 이론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무역실무 학습에 있어서는 협정위주의 공부를 하였고, 모의고사가 시작된 때부터 기본이론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협정을 암기할 때에는 먼저 그 구조부터 파악을 하고 3대협약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그 조항까지 암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 나갔습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11월부터 시작하였고 기본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때에는 큰 범주부터 공부를 하였고, 점점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정리하여 암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다룬 내용을 추가하여 공부하였고 모든 부분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고 중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부하여 암기하였습니다.

모의고사 때는 무역실무과목의 점수가 4과목 중 가장 낮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단순한 협정 암기에만 급급하여 이해가 수반되지 않아서 전체 범위를 아우르는 응용문제에 많이 약했었고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의 암기가 많이 약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시험에서는 다행히도 제가 자신 있었던 부분인 CISG와 INCOTERMS가 나와 꼼꼼하게 서술하였고 대외무역법도 아는 문제가 나와 잘 서술한 편입니다. 평소 무역실무가 많이 불안했지만 시험 문제에서 운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수험생 분들은 저처럼 운에 의존하지 마시고 실무에도 많은 이해와 암기,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을 일찍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과목별 회독 수 및 학습시간 -

1 . 회독 수가 얼마나 돼요?

제가 수험생 때에 다른 수험생들은 과목별 회독 수가 얼마나 되는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합격수기에서는 일주일에 1회독을 거뜬히 하고 나중에는 2회독을 했다는 이야기를 본적이 있었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회독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 봤지만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1회독에 얼마나 걸린다는 것은 시험 성적과는 무관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5월 6월에는 1주일에 1회독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고 외우는 스타일이라 한번도 1주일에 1회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독 수에 집착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간과하고 지나가기 보다는 자신의 학습 스타일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2. 하루 과목별 학습시간은?

저는 1월부터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보는 것이 깔끔하고 오래하는 과목도 없기 때문에 시간을 타이트하고 지루하지 않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과목을 관세법, 환특법, HS, 관세평가, 무역실무, 대외외환 총 6과목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세법 3시간 30분, 환특법 30분, HS 2시간 30분, 관세평가 2시간 30분, 무역실무 3시간, 대외외환 1시간으로 총 13시간을 잡고 공부했습니다. 매일 거의 이러한 시간을 지키며 공부를 했으며, 분위기 전환으로 매주 과목 공부 순서를 바꿔가며 조금이나마 지루함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하루에 13시간을 하고 하루에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며 조금씩 공부에 대한 습관을 길러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시기 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서 잡아갔으면 합니다.

IV. 마치며...

합격 결정이 난 순간 미칠 듯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약간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서로 응원하며 함께 공부했던 분들, 모든 일상을 함께하며 서로 함께 꼭 합격하자고 다짐했던 친구의 불합격 소식에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거웠고, 그날 밤잠을 설쳐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90명이라는 인원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운이 필요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하루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잔인한 시험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내년에 이러한 경험에 부딪히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부딪혀 다시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관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도전하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마음 단단히 드시고 독해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합격수기를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